

총렬공 시향 봉행

2004년 11월 20일(음 10월 9일 토요일)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골에서 총렬공 할아버님의 시향이 경향 각지에서 약 300명의 종인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모셔졌다.

올해 시향은 새로 작성된 흙기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초헌관에는 대종회장 태인, 아헌관에는 부사공과 재은, 종헌관에는 제학공과 학은께서 헌작하였다.

두 녹화하여 후일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대종회장님은 팔팔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많은 종인께서 참석하여 성대히 시향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히 생각한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날 새로이 시행된 흙기는 부회장 명희씨가 각종 문헌과 전적을 참작하여 만든 것인바 다음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확정되면 앞으로는 이 흙기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

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종친제현들께서는 적극적인 고견을 대종회에 보내주시기 바란다.

능동에서 시향을 마치고 즉시 회곡동으로 옮겨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의 시향을 봉행했다. 할머니 시향에서는 초헌관에 태인 회장, 아헌관에 재은, 종헌관에는 영득현종이 헌작하였다.

(기사제공 영환<文>)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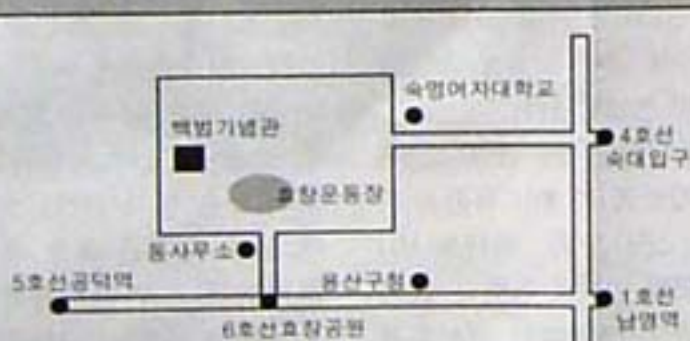
2005년도 안동김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인근 종친 및 여러 종친님들께 서로 연락하시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일시
2005년 3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백범기념관
서울 용산구 효창동
전화: 02-719-1311-2

▲회의안건
1) 2004년도 회계결산 승인
2)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
3) 2005년도 사업계획 승인
4) 기타사항

▲당일회비 30,000원

안동김씨 대종회장
김태인 백



◎새해 인사 말씀

우리 宗親들은 和合과 團結로 한 길을 밟아 邁進하여야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甲申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乙酉年 새해 아침 希望을 설계하며 宗親諸賢의 健勝하심과 高堂에 萬福이 充滿하시기를 祝福된 마음으로 祈願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挑戰하고 跳躍할 수 있는 時間과 機會가 열린다고 하는 事實, 希望한 새해 문턱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벅찬 民族과 國家의 試鍊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挫折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叡智와 勇氣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는 連綿하는 우리 民族의 傳統인 은근과 끈기와 不屈하는 果敢한 精神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安東金氏 大宗會는 흔들림 없이 곳곳이 目的을 向하여 맡은바 所任을 다하고 祖上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이 崇祖睦族의 情과 誠을 다하였기에 不斷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가을 中始祖 忠烈公 할아버지 時享에 京鄕各地에서 많은 宗親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參加하여 주셔서 感銘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새 世代의 人材養成을 위하여 金泰麟 冠名 장학생 3名을 選拔하여 繼續事業으로 장학금을 支給할 計劃입니다.

先祖님들의 遺跡地 및 業績을 發掘 宣揚한 宗親에게 激勵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宗親들은 和合과 團結로 한 길을 밟아 邁進하여 先祖 英靈 앞에 玆玆한 後孫이 되도록 努力할 것과 宗親 家家戶戶에 光榮이 充滿하시길 健勝 하심을 祈願 드리며 새해 人事에 가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 새 아침

大宗會 會長 金泰麟 拜

謹 賀 新 年

乙酉年은 萬事亨通하시고 延年益壽無疆하소서

顧問: (군)在哲 (문)在承 (제)相蒙 (안)在鶴 (익)明會 (익)明雙 (익)信 (익)次會 (도)用秀 (제)相祚 (안)好振 (익)在憲 (익)俊會 (부)東哲 (제)相勳 (안)在基 (익)吉成 (서)寬浩 (익)連會 (군)在錫

名譽會長: (익)璫會

會 長: (안)泰麟

副會長: (密)榮應 (開)相國 (軍)洙寅 (典)根成 (副)圭章 (文)光宇 (安)在煥 (都)聲秀 (大)在喆 (提)永默 (判)奉善 (按)在澤 (翼)永會 (書)詳浩 (正)洙鎮 (提)鶴應 (翼)成植 (都)鳳秀 (翼)命會

監 事: (제)名年 (문)榮煥

理 事: 在英 昌植 昌會 在坤 承會 台鎬 秀吉 光道 在熙 鳳會 廷秀 滄秀 相天 潁植 圭馨 南應 在鴻 泰赫 龍植 在均 會潤 魯振 泰厚 在起 榮俊 吳植 太圭 泰英 泰哲 在光 容世 禮會 滿吉 圭晃 範植

事務局

事務總長: 觀默

常任有司: 鳳洙

文英公 時享 奉行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뒷산에서 文英公(諱 恂선조와 할머니 제평군 부인 양천허씨 영단에서 提按翼書 4파의 후손 80여명이 참석

하여 엄숙히 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헌관은 초헌관 영목(提), 아헌관 재택(按) 종헌관 영희(翼)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묘정에서 문영

공종회가 열렸다. 하응회장의 인사말씀과 선회총무의 2004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총무보고가 있었다.

가한 가운데 대종회장님의 影像비디오 촬영과 時祭 全 景觀을 영상에 담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뜻있는 봉행이 되었다.

아울러 총무보고와 음복을 하면서 우리 정의공파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고 귀로에 올랐다. (會長 洙鎮 提供)

문숙공·상락백공·제학공 시향 봉행

지난해 10월 6일(음)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도정사(挑汀祀)에서는 提學公 습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예년보다 거의 배가되는 130여명의 제관이 참석하여 모처럼의 뜻있는 제향이 올려졌다. 이는 아마도 司正公(諱 楫)의 8대까지의 후손들을 鶴岩宗人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17號墳에 148기의 선조를 양지바르고 전망 있는 명당에 합장하였는데 과연 문종의 시범적인

大役事を 적은 鶴岩派에서 이룩하였다는 것은 실로 패거로서 그에 따른 參拜와 관찰을 겸한 습제 참석이 아니었는가 싶어진다.

헌관 분방을 살펴보면 문숙공(휘 永敷) 상락백공(휘 績) 제학공(휘 益達) 諸位의 초헌은 相宜, 아헌 睿斗, 종헌 福會이고, 사간공(휘 顯) 감찰공(휘 孟康) 諸位의 초헌은 永默 아헌 태성 종헌 태운, 주부공(휘 哲均), 승지공(휘 壽亨) 諸位의 초헌은

名年, 아헌 東浩, 종헌 相天이며, 집례는 鶴應, 대축은 泰錫씨로 행사를 엄숙히 진행하였다.

이어서 총회에서는 승지공(휘 壽亨)묘소가 황폐되어 들레석으로 蔘草하기로 결의하여 300만원의 예산을 결정하였는바 19대손 가전리 상옥씨께서 거금 50만원을 회사하시어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고 폐회를 하였다.

(提) 南應 제공

정간공·영삼사사공·안렴사공 3위 시향 봉행

지난해 11월 16일(음10월 5일)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현지에서 정간공(휘 永熙)·영삼사사공(휘 士廉)·안렴사공(휘 士廉) 3위 시향 봉행이 후손 및 종친 20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헌관 분방은 다음과 같다.

▲정간공 : 초헌관 泰麟대

종회장(按) 서울, 아헌관 圭堯(書) 안양, 종헌관 永默(提) 청주 ▲영삼사사공 : 초헌관 睿大(翼) 서울, 아헌관 在哲(按) 서울, 종헌관 在光(翼) 서울 ▲안렴사공 : 종헌관 魯振(安) 증평, 아헌관 聖會(安) 오산, 종헌관 允植(安) 여주 순으로 제향을 마치고 안렴사공 묘정에서 在光(翼)의 사회로 정간

공 종회를 개최하였다. 재택 회장의 인사말과 재광씨의 제의로 정간공 종중을 위하여 1천만원을 3파에서 익원공파 200만원, 서운관정공파 200만원, 墓下인 안렴사공파에서 600만원을 헌성하기로 결의하였다.

(安)성희 제공

正義公 事蹟碑 時祭奉行

2004년 11월 19일(10월 8일) 안동시 임동면 중평2리

所在의 正義公 事蹟碑設壇에서 김태인 대종회장님께

서 참석하시고 후손 및 종인 50여명이 崇祖向念으로 참

개성윤공(휘 七霖) 시향봉행



2004년 10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개성윤공(開城尹公) 설단에서 개성윤공 시향봉행이 후손 및 대종회 관록 사무총장과 안렴사공파 성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에는 鳳俊, 아헌관에는 관록 사무총장과 종헌관에는 品潤 종친이 헌작하였다.

개성윤공파는 세거지가 북

한으로 할아버지의 묘소가 평안도 박천(博川)에 모여져 있으며 그곳에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남한에는 현재 월남하여 사는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추모정신을 잊지 못해 설단(設壇)을 모시고, 해마다 양력 10월 둘째 일요일(10월 10일)을 한사의 날로 정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성껏 봉행하고 있다.

(安)성희 제공

참봉공(휘 公彦) 시향 봉행

2004년 11월 4일(음 10월 3일)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겸대동에서 안렴사공 6대손인 참봉공(휘 公彦)의 시향이 후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시향은 참봉공(휘 公彦), 군자감정공(휘 勳), 현정공(휘 孝吉), 도사공(숙), 학생공(익) 등 5위를 합제로 올렸다. 또한 참봉공의 배위이신 선산유씨(善山柳氏)의 아버지이시며 장

인이신 선산유공(善山柳公) 2위 분에 대한 시제도 올렸다. 선산유씨에 시제는 400여년간 외손봉사를 이어 오고 있다.

헌관은 초헌관에 사손 永植, 아헌관 權會, 종헌관 鍾植, 대축 聖會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외손 봉사시제는 초헌관에 尾默, 아헌관 泰亨, 종헌관 觀默이었다. 안렴사공파에서는 종손을 사손이라 부른다.

(安)성희 제공

“성금을 보내 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총합공 형사시 찬조금 명단

▲지파별

△익원공파종회 10만원 △안렴사공파종회 10만원
△정의공파종회 10만원 △개성윤공파종회 10만원
△문은공파종회 10만원 △제학공파종회 5만원
△일직사공파종회 20만원 △문영공파종회 30만원
△군사공파 수석부회장 창회 10만원 △(군)철성문
중 중목 30만원 △(군)광탄중목 홍수 10만원
△안동북부지구종회 10만원 △대구종친회 10만원
△안동종친회 5만원 △인천종친회 10만원
△충북전통종친회 10만원 △(군)철방공파종회 중목

10만원 △(문)별제공파종회 10만원 △(군)괴산사리
중목 5만원 △상주시종회 5만원 △(익)승문중목 경
북 영주중목 000 5만원 △안동개곡리중목 5만원

▲개인별(10만원)

△(익)수백 △(익)용대 △(도)희운 △(안)태영
△(문)영수

▲개인별(5만원)

△(정)태석 △(정)수성 △(익)성희 △(안)윤식
△(군)재홍 △(익)현희 △(제)영목 △(제)상현
△(도)호식 △(익)봉수 △(익)성식 △(군)영득
△(익)재기 △(군)원희 △(군)세목 △재필(재산청인)

▲개인별(3만원)

△(부)규장 △(군)재찬 △(제)중식 △(안)성희(괴산)
△(익)태인 △(전)종문 △(익)동수 △(제)용두

▲개인별(2만원)

△(익)재택

▲개인별(1만원)

△(제)운해

▲찬조금(2004. 11. 1 ~ 2005. 1. 24)

10만원 : (군)재호 재화, (제)전웅
5만원 : (안)재훈, (제)팔봉
1만원 : (익)재관

▲봉상회비(2004. 11. 1 ~ 2005. 1. 24)

5만원 : (익)대희
4만원 : (안)태식
3만원 : (개)이전, (도)영수, (안)우경, (익)용해 재복
정희 영용
2만원 : (군)재신 대웅 태웅 인희 송목, (문)현철,
(도)재욱, (대)재철, (제)봉근 태웅 상운 남운, (안)
태길 경준 재관 재관 상근 재득 선진 상연, (익)현
희 덕성 기환 도식 영덕 용호 낙희 철희, (서)규태,
무명 2인
1만원 : (개)병주, (문)재희, (익)광희

계 410,000원

계 950,000원

안정공(휘九德) 시향봉행



지난해 11월 15일(음10월 4일) 경기도 여주군 남면 원송리 안정공(安靖公) 묘소에서 30여 후손이 참여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안정공 선조님은 후손이 번창하지 못해서 자손들이 귀 한데다 한世紀동안 묘소를 실전하였다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당시 파회장이었던 故 弘默현종의 헌신적인 숭조 정신으로 심묘(尋墓)하여 복원(復元) 수지(修治)하고 향사를 받들고 있다.

이날 대종회에서 安靖公 享祀에 참여는 처음으로 수석 부회장 命會현종이 참석했다. 들건대 그렇게 오랜 세

월 실묘를 하였는데도 묘비와 상석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다만 묘소에 삼림(森林)이 울창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江陵崔氏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이 분들이 墓礎에 安靖公 九德 刻銘이 뚜렷이 새겨져 있음으로 언젠가는 후손이 나타날 것을 짐작하고 그대로 보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 고장 民心과 德義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안정공 후손들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 드리는 바이다.

안정공종회 제공

익원공(휘 사형) 선조님 영정 봉안식 거행

2005년 1월 18일 오전 11시 익원공파종회 사무실서

2005년 1월 18일 오전 11시 익원공파종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57-33호)에서는 익원공 선조님에 대한 영정 봉안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종회 김태인 회장을 비롯하여 김명회 부회장님과 관록 대종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문영공 파종 회장님(김학음), 안렴사공파 종회장님(김재택), 제학공파 종회장님(영목), 익원공파종 회장님(김영회)이 참석하시고 경향 각지에서 약 100여 명의 현종들이 참석하였다.

약 1시간에 걸쳐 엄숙한 봉안식이 거행되었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영정 제작 화가 이신 벽해 김송배화백이 참여하시어 영정을 그리게 된 배경과 제작 과정, 제작 방법 등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김화백은 현 안동의 음수재에 모셔져 있는 종렬공 영정을 1970년대에 그린 바 있고, 지난 해에는 안렴사공파의 문단공(휘 衡, 회산군)의 영정을 그리신 바 있다.

봉정식 후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선조님의 영정 봉안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익원공파 종친 이외에 타 종친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안렴사공파 : 김재균, 김희운, 김성희, 김용주



2. 제학공파 : 김학음

3. 서운관정공파 : 김관호, 김규면, 김철호

1. 제작 일시 : 2005. 1. 18.
2. 제작 화가 : 벽해 김송배화백

(문화관광부 영정심의 문화재 위원인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성실 교수의 고증과 자문으로 복원 작업 실시)

3. 제작 추진처 :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4. 영정 실제 크기 : 가로 105cm X 세로 150cm

5. 영정 봉안소 : 익원공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57-33호)

6. 영정 표구처 : 인간문화재 김진두의 아들 김권영(문화부 문화재 관리국 표구기능 등록 제 822호) 표구사

7. 영정 복원 제작 이유 : 기존의 익원공의 영정이 약 60여년전(1940년 경 추정)에 아무 고증도 없이 합판에 페인트로 그려졌으며 관모와 흉배 복식도 생존 당시와 맞지 않아서 다시 제작하게 됨(익원공파종회 제작, 익원공 봉안식 초청장 기록 내용)

(提)학음 제공

서운관정(휘 綏)시향봉행



서운재

2004년 11월 12일(음 10월 1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운재(書雲齋)에서 후손 및 종친 30여명이 참석하여 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시향봉행은 3부로 나누어 합동시향을 올렸다

제1부는 장령공(휘 襄), 서운관정공(휘 綏), 사현부공(휘 晔) 고려충신장령공(徐讓)이다. 고려충신 장령공은 사현부공 휘 질의 장인으로 500여 년간 외손 봉사를 하고 있다.

제2부 감찰공(휘 自行), 유언재공(휘 希壽), 동구공(휘 魯), 주부공(휘 季演).

제3부 현감공(휘 伯演), 교리공(휘 仲演), 信立, 衡重이다.

이날 현관은 ▲제1부 초헌관 詳浩, 아헌관 圭冕, 종헌관 周一 ▲제2부 초헌관 基永, 아헌관 元永, 종헌관 圭南 ▲제3부 초헌관 觀默, 아헌관 基會, 종헌관 圭東, 대축 詰浩, 집사 容浩 순으로 봉행하였다.

서건은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우리 문중의 안렴사공과 같이 고려의 충절을 다 한분입니다. 현재 묘소가 포일동에 모셔져 있다.

(書)철호 제공

'전국 종친에게 알려 드립니다'

근래 대종회의 명의를 사칭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 씨족뿌리에 대한 서적 족보(파보, 화수록, 계파도) 汎新 羅金氏에 대한 서적, 冠婚喪祭 禮節에 관한 서적, 姓氏에 관한 서적을 대종회에서 발간 판매하는 양 기만하여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사례 2 : 宗土를 임가로 분양하니 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상과 같은 사례의 발생시 대종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244-3717

핸드폰 010-6789-3949, 011-9951-1444

※ 향 전 원 예 ※

대표 김재균

(경조화환 / 화분)

전화 :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

인천종친회 경순왕릉 참배



인천종친회(회장 金常元)는 2004년 10월 31일(일) 종친회원 30여명과 대종회 사무총장 관목, 대종회 전 부회장 성희종친이 참가한 가운데 연천 고랑포의 경순왕릉을 참배하고 김재은 고문의 안내로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이 모셔져 있는

표충사를 참배하였다.

이 자리에는 부사공파 구장 회장이 나와 영접하였다. 이어 노동당사와 백마고지 전투전적비등을 둘러보고 귀로에 올라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된 하루의 일정을 보냈다.

인천종친회 부회장 윤교 제공

島山 安昌浩 선생 탄신 126주년 기념

泰麟 대종회 회장 시상말야

도산아카데미연구원이 주최하고 흥사단 도산안창호 선생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도산의 밤 행사가 2004년 11월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그랜드볼룸에서 강영훈 前총리, 서영훈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등 많은 내빈을 모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산안창호선생 탄신 126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더욱 뜻 있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서 "영상으로 보는 도산" "도산특별상 수상"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경품추천



대종회 회장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상식 및 감사패 공로패 전달은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이사장인 태麟 대종회 회장께서 맡아주셨다.

편집부

2004년 인천종친회 송년 모임 행사

2004년 인천종친회 송년 모임 행사

인천종친회(회장 김상원)은 2004년 12월 3일 인천 신신웨딩홀 뷔페에서 종친회원 및 가족 50여명과 대종회 관목 사무총장, 수석 부회장 명희, 전 부회장 성희종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송년모임을 행사를 가졌다.

상원 회장의 인사말씀과 관목 사무총장의 격려사와 인천종친회 발전에 공이 큰 부사공파 재준, 전서공파 홍국씨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춘敦수석 부회장이 제정하여 발의한 인천종친회 회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종친회 회원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회원수첩은 칼라사진으로 파명, 주소, 연락처 등을 수록하였다.

이어 김홍식 명예회장이 선창하고 회원 전원이 잔을 들고 안동김씨를 위하여 선창에 따라 전 종친회 회원들의 건배와 이어서 여흥시간을 가졌는데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장기자랑 등 푸짐한 선물과 기념 등을 받았다.

인천종친회 구성을 보면 군사공파, 전서공파, 부사공파, 제학공파, 안렴사공파, 익원공파 6개파의 종친이 모여 다른 어느 종친회보다 융통하고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김성희)

알림 : 우암집 국역화 출판기념회

여주읍 신터미널 2층 관공취폐에서

2005년 2월 27일 오전 11:00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신터미널 2층 봉황뷔페에서 여주문화원과 우암문집발간추진위워회가 주최하고 안렴사공파가 후원하여 우암(휘 金澍) 유집인 우암집을 국역화하여 출판기념회를 갖고자 하오니 뜻있는 종친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우암은 안렴사공의 칠대손으로 조선의 8문장가중 으뜸이셨으며 시호는 문단(文端)이고 봉호는 화산군(花山君)이십니다.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族譜出版의 元祖

回想社 6大 特徵

1. 創設 47年 歴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인류학로 迅速, 正確한 電子編輯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泰田體(漢文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辭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版을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많을지 編輯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練한 技能을 多數 確保
6. 1,000餘冊 以上の 넓은 倉庫를 確保完了해 任의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族譜를 讀하여 漢, 韓, 代名 轉換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姓 發刊원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위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아직하고 快速한 곳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の 故草,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자 하오니 많은 惠顧과 利用일으키기 바랍니다.



서울支社 略圖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와 강변한신코아 1412호입니다

回想社

本社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1253-9881-3 Fax 0421253-988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82

백곡 김득신 탄생 400주년기념 학술발표회

임동철·성범중·김창룡 교수 등 주제 발표



행사후 발표자와 종친들의 기념촬영

지난 2004년 11월 29일 오후 3시, 김득신 기념사업회와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백곡 김득신 학술발표회>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는 증평군수를 비롯한 지역 각 기관장과 경향 각지의 내빈들, 3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병천, 괴산,

증평의 많은 종친 여러분들이 참석하였고, 멀리 경기도 수원시의 익원공파 참의공 종친회 3분도 참석하였다.

유병택 증평향토문화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발표회는 최성균 기념사업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는데 유병호 군수는 축사를 통해 향후 백곡선조님의 문학세계의 재조명과 현양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임동철 충북대교수는 <김득신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 성범중 울산대교수는 <김득신의 한시에 나타난 귀거래 의식과 취묵당>, 김창룡 한성대교수는 <김득신의 산문문학-가전문학-에 대해서>, 신범식 충북대 강사는 <김득신의 종남총지에 나타난 시문>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성기(충북대학교, 한국한시학회)교수, 최응권(중국 연변대학교)교수, 김길자(한국예총증평지부장)님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와 발표로 이어졌는데 약 4시간에 걸친 발표와 경청으로 발표회장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提)함용 제공

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며 초창기의 부족한 자료들과 오래된 기억들을 더듬어 한편의 책으로 발간한 회장 이하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우리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창장년회의 발전과 대구종친회 발전에 앞장서자고 역설하였다.

대구창장년종회 제공

남봉공 김치 선조님의 <심곡비결> 국역 간행

지난 2004년 7월, 국역 <심곡비결>(深谷秘訣)이 간행되었다. 저자이신 남봉공(南봉公) 김치(金致) 선조님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아드님이시며 조선 선조때 文科를 하시고 사가독서(賜假讀書)를 거쳐 광해군·인조 때 대사간·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우리나라 자미두수 역술학계의 태두로 이름 높은 분이시다. 이 국역본은 국내 최대 연구가인 이두(李斗) 金善浩 선생이 약 10여년간 심혈을 기울여 국역한 것이다.

이 <심곡비결>(규장각본)은 모두 5책, 875쪽이나 되는 방대한 서적으로 동양의 역술학(易術學) 중 자미두수 계열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역술서이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심곡비결>로는 1)규장각본(이승운 기증본), 2)김구일본(남봉공의 묘에서 발견된 것의 복사본), 3)김학수본(경상감영의 기동소에서 발견된 필사본), 4)국립중앙도서관본 등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한 국역본은 가장 완전한 서적인 규장각본을 기초로 했다.

이 <심곡비결>은 동양의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론과 예제를 가장 자세하게 갖추고 있다. 남봉공 김치는 이 심곡비결의 역술법으로 인조 반정의 성공을 예언하는 등 높은 적중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때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들은 이토록 유명한 남봉공에 대한 불안감과, 자미두수로 운명을 점친 경상도 선비들이 과거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공을 유배 보내고 심곡비결을 수거하여 불태우기도 하였다.

*<심곡비결>

대유학당 학술총서 61.

김선호 역, 2004. 7.

대유학당 간.

값 43,200원, 출판사

연락처 : 02)2249-5630

기사제공자 : 恒鐘(提)

대구창장년회 2005년 신년회 개최

안동김씨 대구창장년회에서는 지난 1월 8일(토요일) 오후 6시 범어사거리에는 신세계웨딩 5층 다이아몬드홀에서 15년사 발간과 2005년 신년회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렀다.

이날 대구종친회장(봉수)을 비롯하여 총무, 감사 및 이사분들, 재문 고문과 여러 내빈을 모신 가운데 7시 20분에 행사를 시작하여 국민의례와 송조묵념을 가진 후에 15년사 추진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의회장의 대회사와 대구종친회장님의 축사, 대구 익원공파종회장의 축사, 그리고 창장년회 초대회장 경희씨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은 대회사에 앞서 내빈으로 참석하신 대구종친회장과 재문 고문, 경희 초대회장, 영화 추진위원장께 환영과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지난 11



월 30일 성식회원의 사무관 시험합격을 축하하는 격려 순서로 가졌다.

영화 위원장은 경과보고에 이어 통권 1호를 의회장이 회원 전원들의 박수 속에 전달받았으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내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회원 모두에게 15년사 발간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요지의 인사가 있었으며, 회원 모두가 아끼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종친회장의 축사에

는 회장을 비롯하여 추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참으로 알찬 내용과 지난 15년간의 행사 기록을 볼 때 창장년회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필독서가 될 것을 확신한다는 치하의 말씀과 용길 회장님의 창장년회 송조정신과 전국을 해매며 분파조를 찾아다니는 행적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며 앞으로로도 계속해서 귀중한 일들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초대회장 경희씨는 15년

알림 :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 출간

김명희·송재훈·조영돈 공동집필

대종회 命을 부회장은 금번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喪禮와 祭禮)'를 출간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의식으로 삼아왔던 喪禮와 祭禮는 8.15 光復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윤리는 결핍되고 허례허식만 만연하여 이를 안타까이 생각하던 차 진천송씨 대종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송재훈과 한양조씨 부회장 조영돈 등 3인이 공동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의 喪禮와 祭禮에 대한 이번 교재는 명희 부회장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제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한편 점차 무너지고 있



는 예의와 도덕심을 고취하고자 출간한 것으로 판매 수익금은 전액 대종회에 기부키로 했다.

권당 10,000원
편집부

문은공파 시제봉행 및 신임회장 선출



문은공파 시제가 2004년 11월 12일(음 10월 1일) 50여 명의 종친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금수단과 가양리 선영에서 봉행되었다.

11:00 정각 산신제(현관: 유만 종친, 이하 존칭 생략)에 이어 11:10분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무이

사(영환)의 성원보고와 문은공파종회장(종회)의 인사말에 이어 전차 회의록 보고와 신임회장 선출건을 상정, 참석 종친들의 만장일치로 직제학공계 광우(泰항) 종친께서 추대되었다.

뒤이어 총무보고(영환), 재무보고(영운), 감사보고(계만) 및 부사공(휘 명

리) 묘지호 설명이 이어졌으며, 새해 예산안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영운 재무이사는 회관운영의 건전재정으로 연간 800~900만원의 이익이 발생, 회관 구입시 발생한 채무를 수년 내에 완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날 문은공파종회장께서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종친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문은공파종회의 발전을 위해 신임 회장을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파종회장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미진

했던 사안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보다 많은 종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신임 회장(광우)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후에 삼성물산(주) 고문을 역임하였고 홍조근

정훈장을 받았다.

신임 회장께서는 "부족한 저를 믿고 추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파종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 것과 "젊은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승조목족의 미풍양속을 이어나가도록 함 것"을 다짐했다.

高麗崇義殿保存會 會長에 命會종친

2004년 12월 1일 사단법인 高麗崇義殿保存會에서는 고려 16공신 문중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 사무총장인 명회 종친을 만장일치로 고려송의전보존회 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고려송의전보존회는 총렬공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고려 16공신이 배향된 곳이다.

제2대 명회 회장은 고려 송의전보존회에서 현양 사업을 앞장서서 하는 등 숭조 사상이 제일 뛰어 났으며, 항상 고려송의전보존회 발전을 위한 많은 안건을 제출하는 등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편집부

한가락회 시회(詩會) 총렬공 산소 참배



지난해 12월 5일 한가락 시회에서는 최권중(崔權中)회장과 25명이 안동 총렬공 산소를 참배하고 역사바로알기 교육을 음수재(飲水齋)에서 1시간에 걸쳐 최회장의 작성원고로 강(講)하고 총렬공 찬시(讚詩)를 시창(詩唱)하였다.

서울에서 7시에 출발하여 안동에 도착하니 10시 30분, 안동역에서 鳳洙상임유사와 東洙이사 成植부회장이 영접을 나와 같이 탑승하여 녹전면 구송동 신도비를 둘러보고 음수재에 11시에 도착하였다. 한가락회원 모두는 총렬공산소에 참배하고 이어 영정각에서 분향, 재배 한 후 최회장이 대표로 到記에 서명한 후 講論에 임

하였다. 대종회에서는 명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하여 귀q빈들을 안내하였다. 이날 교재와 찬시는 아래와 같다

飲水齋

飲水齋在慶尙北道安東市綠轉面竹松里金上洛公追慕也公諱方慶安東人新羅金傳九世孫曾祖諱義和司戶祖諱敏誠掌治署丞兼直史館考諱孝印正議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充史館修撰官知制誥元興鎮副使郎將宋善女初有娠屢夢餐雲霞嘗謂人曰雲氣尚在口鼻此兒必神仙中來公天性忠勤而恭儉信厚而嚴以將軍兼給事中或兼御史中丞或以金吾衛大將軍知開門事又知御史臺事又拜御史大夫夙夜匪懈決斷神明然生風人

皆畏肅或以民望累鎮西北恩威迭用其俗嚴至今懷慕國家當自江都復出松京一部軍逆命南下公以同知樞密院事爲追討使統軍圍珍島至翌年五月凡大戰十五度而取之遂拜金紫光祿大夫守大尉中書侍郎平章事判吏部事太子大保俄而拜門下侍郎平章事後餘衆入據耽羅以公爲行營中軍兵馬元帥癸酉四月二十八日帆過大洋盡峰屯元廟召入寢殿曲賜宴慰授守大師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上柱國判御史臺事於是又奉東征之命甲戌入討日本浮基多庚辰冬朝于席所帝授中奉大夫管高麗軍都元帥辛巳夏又入日本南宋軍後期三月因以疫興不得已還癸未又上章懇乞退任上加三韓壁上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判都議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仍令致仕上心未滿丙申冬又加上洛公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其後謚忠烈因命立碑神道也忠烈王二十六年庚子秋八月十六日因疾而薨于栢木洞溪里以九月初三日歸葬于禮安西山之麓從遺教也嗚呼教難濟民德一也年至八十九齒一也以元國都元帥又加封公爵一也夫天下有達尊三

其得三而無缺者唯一公也配起居郎知制誥朴益旌之女生三男三女繼配孫氏生一女也公器識弘大不拘小節斷事百無一差書傳家法詩亦能之氣骨異常能寒暑無疾少睡至老頭髮不白晝不寐臥故舊不遺衣食斤華靡平生不言君主之失每於歲時公將相皆先往拜萬世龜鑑也讀曰

山水秀麗人傑豐
永嘉貫郡金門瑞
羅時王裔中興祖
麗末元勳上洛公
理亂重任誠盡力
征倭大事惜歸洞
至今世故如當日
尙教一謀舊功

<시조> 음수재(飲水齋)에서 4337년 12월 5일 崔權興

어머니 꿈속에서
보였던 구름이라
높이 떠 살피나니
바다 밖 멀리까지
한 번쯤 하룻강아지
무서운 범 불 테나.

飲水齋 題 次韻 東

古邑永嘉遺蹟豐
옛 고읍 안동에 유적이 많은데
綠田山麓高齋瑞
북전산 기슭에 훌륭한 재실이
아름답구나
征倭大事都元帥
일본을 정벌한 큰 일하신 도원수이시며

教國靖難忠烈公

나라를 구하고 난을 평정하신 충렬공이시다.

再拜焚香追慕敬

재배하여 분향하고 추모하고 공경하며

三盃獻酌淚心悵

삼배잔을 올리고 눈물지으며 마음 아파한다

宦途盡力吾門祖

벼슬길에 힘을 다하신 우리 가문 할아버님이시며

靑史無雙萬歲功

청사에 비길데 없는 만년 공이로다

西原 金 容 大

이 글은 한가락회 최권중 회장 및 회원들이 총렬공 산소 참배할 때 익원공파회장과 문영공파 회장을 역임한 김용대 종친이 지은 시입니다.

한가락회는 회장 최권중 선생을 위시하여 고전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는 안렴사공묘소도 참배하여 시를 짓고 추모 하였습니다.

또한 두문동 72현의 묘소를 찾아 시를 짓고 공적을 그린 책자도 발간 하였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익원공파 회장과 문영공파회장을 지낸 김용대 회장이 참여하고있는 단체 입니다.

(다음호에 계속)